

## 흰가루병 저항성이면서 잎이 큰 곶취 ‘대마니’ 품종 육성

서종택<sup>1\*</sup>, 김기덕<sup>2</sup>, 이종남<sup>1</sup>

<sup>1</sup>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 연구관, <sup>2</sup>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 연구사

### Breeding of ‘Daemani’ Cultivar of Gomchwi with Big Leaf and Resistance of Powdery Mildew Disease

Jong Taek Suh<sup>1\*</sup>, Ki Deog Kim<sup>2</sup> and Jong Nam Lee<sup>1</sup>

<sup>1</sup>Senior Researcher and <sup>2</sup>Researcher, Highland Agriculture Research Institute, National Institute of Crop Science, Pyeongchang 25342, Korea

곶취는 주로 쌀용, 장아찌, 나물용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주로 자생 곶취의 일종인 ‘곤달비’ 라고 하는 종이 많이 재배되고 있다. 일반 곶취에 비해 곤달비는 향이 진하지 않고 씹쓸한 맛이 적어 인기가 많은 종이다. 또한 농가에서는 엽수가 많아 수량이 높기 때문에 재배를 선호하게 된 종이기도 하다. 그러나 곤달비는 수확후 여름을 지나면서 고온건조기에 흰가루병과 식물체가 위축되는 로젯현상으로 잎이 작고 진록색으로 되거나 고사하여 다음해의 수량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2~3년 재배를 하면 연작장애와 더불어 결주가 생기기 시작하고 수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흰가루병에 저항성이면서 세력이 우수한 한대리곶취와 일반곶취를 교배하여 흰가루병에 강하고 수량성이 뛰어난 계통을 선발하여 그 동안 ‘쌈마니’, ‘다목이’, ‘곶마니’, ‘수마니’, ‘그린베어’ 등 5품종을 육성한 바 있다. 이번에는 용도 다양화를 위하여 잎이 매우 커서 김밥처럼 곶취 밥말 이용을 선발하여 품종을 만들고자 하였다.

‘대마니’ 품종은 2007년 7월에서 9월까지 인공교배를 하여 종자를 얻었으며 2008년 3월에 파종하여 육묘후 포장에 정식하여 생육관리를 하였다. 2013년 생육 및 수량특성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재배되는 ‘곤달비’ 종보다 우수한 7033-1번 개체를 선발하였다. 선발된 7033-1번 개체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노지포장에서 증식되면서 곶농G-7호로 계통화 되었으며 2019년부터 2년간의 생육특성 검정을 통하여 최종 선발하였다. 그리고 2020년 농작물직무육성 품종선정위원회에서 신품종으로 선정되어 ‘대마니 (Daemani)’로 명명되었다.

‘대마니’ 품종의 특성은 엽병귀의 색이 연녹색을 띠고 엽병에 털이 있으며 잎 뒷면에 털은 없으나 광택이 없고, 엽맥밀도는 보통이다. 쌀용, 데침쌀용, 묵나물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엽장과 엽폭이 39cm와 49cm로 ‘잎이 커서 밥말이용으로 적당하다. 주당 엽수는 54개로 ‘쌈마니’ 품종보다 매우 적다. 주당 수량은 4,961g 으로 ‘쌈마니’ 1,362g 보다 3배 정도 많았다. 추대시는 8월 28일, 개화시는 9월 16일로 ‘쌈마니’ 품종보다 약 6일 정도 늦었다. 흰가루병 저항성 정도는 ‘쌈마니’ 품종의 중도 저항성에 비하여 전혀 병에 감염되지 않는 강한 저항성을 보였다. 이와 같은 특성의 흰가루병 저항성 품종이고 잎이 큰 ‘대마니’ 품종이 농가에 보급되어 출하된다면 밥말이용 등 용도다양화를 통한 새로운 소비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육종, 곤달비, 한대리곶취, 수량, 추대, 개화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연구사업(세부과제번호 PJ01335201)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Corresponding author) jtsuh122@korea.kr, Tel: +82-33-330-1800